

증시 불안감 고조나 완화나… 투자자, 美 기준금리에 촉각

KRX, 코스피 내리고 코스닥 올라
UBS-CS 합병에 안정세 보이다가
미국 기준금리 ‘동결’ 전망 급부상
경제심리 확산, 변동성 다시 상승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등으로 증시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은 오는 21일(이하 현지시간)과 22일 양일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집중되고 있다. FOMC 정례회의의 결과에 따라 향후 증시 방향성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물가와 금융안정을 두고 25bp(1bp=0.01%포인트) 금리 인상, 동결 또는 인하 등 엇갈린 전망이 시장에 나오고 있어 당분간 증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 대비 0.69% 하락한 2379.20에 거래를 마무리했다. 코스닥은 0.60% 오른 802.20에 마감했다. 이날 CS를 같은 스위스 은행인 UBS가 전격 합병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개장 전에 전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82포인트(0.16%) 내린 2391.87에 장을 시작한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국내 증시는 안정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3월 미국 FOMC를 앞두고 경제심리가 확산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특히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 7043억원을 팔아치웠던 외국인은 이날에도 2062억원을 순매도하며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893억원, 1061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번 주에는 미 연준이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SVB 파산 사

태 이전까지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최소 베이비스텝(0.25%p 금리인상) 혹은 빅스텝(0.5%p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시장에 우세했으나, 연준이 베이비스텝 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급부상했다. 그러나 지난 16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한 데다 미정부가 예금 전액 보호 조치 등 발 빠른 대응으로

시스템 위험으로 변질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연준이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은행 불안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이고 있고 일부에서 인하여지도 열어두는 상황”이라며 “은행발 불안에 따라 연준이 이전보다는 때파적인 태도가 완화될 여지는 있겠으나 은행 불안에 대한 연준과 정책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3월 FOMC 말고도 점도표 변화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연준의 스탠스와 시장 기대 간의 괴리가 커졌는데 이는 언제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경민 연구원은 “12월 FOMC에서 공개된 2023년 점도표는 5.1%로 현재 투자자들은 2023년 점도표가 5.1%에서 최소 0.3%p, 최대 1.3%p 하향 조정되기를 기대하는 상황”이라며 “점도표가 유지되거나 소폭이라도 상향 조정될 경우 시장의 기대가 실망감으로 전환되

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 우려가 증폭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채권금리와 달러 반등, 증시의 언더슈팅(UnderShooting)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만약 점도표가 하향 조정될 경우 단기적으로 투자심리가 진정되겠지만, 최근 불거진 금융권 파산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강한 상승추세를 전개해 나가기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준 FOMC 회의 외에도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당분간 국내 증시에서 변동성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SVB발 은행권 위기 여진, 미 연준 FOMC 정례회의, 국내 수출과 주요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등 대내외 대형 이벤트의 영향을 받아 변동성 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주 코스피 예상밴드로 2340~2440을 제시했다.

/원광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에코프로 ‘쌍끌이 매도’… 하향 vs 매입 의견 분분

KRX, 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
이달 기관·외국인 순매도 행렬

맥쿼리·UBS증권 ‘매도’ 의견 제시
한투증권, 목표가 25만원으로 상향

연초부터 끊임없이 오르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최근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평가 논란 속에서 차익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내부자거래 의혹까지 터지면서 상승세가 멈출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7일까지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이다. 해당 기간 동안 기관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를 각각 3388억원, 2650억원 가량을 팔아치웠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까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순매도 행렬에 동참하면서 주가 하방압력을 더하고 있다. 이달 중 외국인의 순매도 상위 2위



충북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에코프로비엠 본사. /에코프로비엠

와 4위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외국인은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에코프로 2399억원, 1611억원을 팔아치운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 에코프로 7.85%, 에코프로비엠 -7.41% 주가가 하락한 바 있다.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속에서 에코프로 주가도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지난 2월까지만 하더라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

이 사들인 종목에 꼽히면서 외국인 수급이 크게 개선되면서 주가를 밀어올렸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초 11만원이었던 에코프로는 40만원선을 넘어섰으며, 에코프로비엠은 9만원대에서 20만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최근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를 두고 국내외 증권사에서도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최근 맥쿼리증권과 UBS증권은 리

포트를 통해 ‘매도’의견을 제시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단기간 주가 과열, 과한 프리미엄 등을 이유로 매도의 견과 함께 현재 주가 대비 낮은 목표주가를 제시한 바 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오히려 에코프로비엠의 목표주가를 25만원까지 높여 잡았다. 김정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주가는 올해 들어 127% 상승했는데, 삼성SDI 등 고객사의 신규 투자 계획 구체화 및 장기 공급 계약 체결 기대감 상승 때문”이라며 “삼성SDI의 전기차용 2차전지 탑재량 증가, SK온의 2차전지 출하량 증가 등 실적 개선 등이 실적 개선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에코프로 관련 종목은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들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주가가 흔들리는 듯 했지만 결국 소폭 반등한 채 마감했다. 지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16~17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영석 기자 ysl@

나라셀라, 코스닥 예심 통과 와인수입 상장사 ‘1호’ 기대

나라셀라가 지난 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가운데 국내 첫 와인 수입 상장사 ‘1호’ 타이틀을 거머쥔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나라셀라는 신영증권을 주관사로 지난해 10월 심사를 청구해 약 5개월 만에 첫 관문을 통과했다. 상장 예비심사 효력이 6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늦어도 올 하반기 안으로 상장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나라셀라는 지난해 금융분야 고위급 전관, 해외투자 전문가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면서 상장을 위한 ‘IPO드림팀’을 꾸렸다. 지난해 3월에는 국세청 출신 김충렬 감사를 새로 영입했으며, 같은 해 6월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석윤수 비파이낸스 한국 대표를 각각 이사회 내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다만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의 경우 지난 5일 사외이사에서 중도 사임했다.

나라셀라 지분구조는 예심 승인 기준으로 나라로지스틱스가 지분 69.7%로 최대주주다. 나라로지스틱스는 마승철 나라셀라 회장이 최대주주이며 지난 2021년말 기준 7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나머지 약 30% 지분을 에이벤처스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2021년말까지만 하더라도 노탁와인문화성장 사모투자가 보통주 지분 약 20%를 갖고 있었지만, 지난해 엑시트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에이벤처스가 나라셀라 신주인수 당시 구주를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나라셀라가 상장에 성공할 경우 국내에서는 와인 수입·유통사로는 1호 상장사가 된다. 국내에서는 또 다른 와인 수입·유통 업체인 금양인터내셔널 역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석 기자

세제혜택·투자수익 ‘두 토끼’… 청년펀드 출시 봇물

만 19~34세, 연 240만원 소득공제
3년 이내 매도면 6.6% 해지 수수료
미래에셋·대신·NH투자 등 상품판매

세제 혜택과 투자 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펀드)’ 출시가 봇물을 이룬다. 청년펀드는 2030세대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는 청년펀

드는 만 19세~34세 미만 청년이 가입 대상으로 펀드 계약 기간 동안 연 600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이면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가입기간은 3~5년이다. 단, 3년 이내에 펀드를 매도할 경우 납입금의 6.6%의 해지 수수료가 붙는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이 관련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이어 삼성증권, KB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도 판매 일정 확정을 계획 중이다.

자산운용사들은 펀드 라인업 확대에 나섰다. 2030세대의 투자 성향과 관심사를 반영한 펀드가 주를 이룬다.

지난 17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청년

펀드 3종을 출시했다. 국내 기술혁신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에셋코어테크 청년소득공제 펀드’, 국내 우량기업 우선주와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 청년소득공제 펀드’, 주식형인 ‘미래에셋장기포커스 청년소득공제 펀드’ 등이다.

NH-아문디(Amundi)자산운용도 17일 장기 투자 상품이라는 특징을 고려해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NH-Amundi한국미국성장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증권투자신탁(주식) 펀드’를 내놨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